

## 일본의 지역연구와 지역전문가 교육\*

이 종 구

### I. 조사의 배경과 목적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는 1994년 1월 30일부터 2월 4일까지 일본의 지역연구 관련 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지역종합연구소가 수행한 1993년도 교육부 지역연구 지원 과제의 일부인 「기초연구과제」이다. 지역종합연구소의 연구원 3명과 교육부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은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연구지원체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정과 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 조사 일정

1994. 1. 30 (일)=출국, 京都 도착

1994. 1. 31 (월)=京都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  
神戸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1994. 2. 1 (화)=大阪 국립민족학박물관,

1994. 2. 2 (수)=아시아경제연구소

1994. 2. 3 (목)=東京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

1994. 2. 4 (금)=東京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 참가자

이 종구 :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이 성형 :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오 명석 :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인류학과 교수

김 회원 : 교육부 학술진흥과

1980년대 중반부터 국제화를 사회적 목표로 표방해 온 일본에서 외국 사정에 대한 연구의 조직화와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는 상황을 알아보려는 것이 조사에 착수한 목적이었다. 조사단원들은 여기에서 수집되는 자료를 통해 일본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제 지역연구가 출발 단계에 있는 한국에서 연구자들이 겪을 수도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의 지역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작업에 참조할 수 있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는 구체적인 기초자료의 수집에 주안점이 있었다. 조사단은 연구 대상 지역을 특정 대학 연구소별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점교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에서 지역 연구와 대학교육을 연계시키는 제도의 내용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회 각계에서 급속히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국제적 감각을 가진 실무자를 대학원 교육을 통해 양성하는 방식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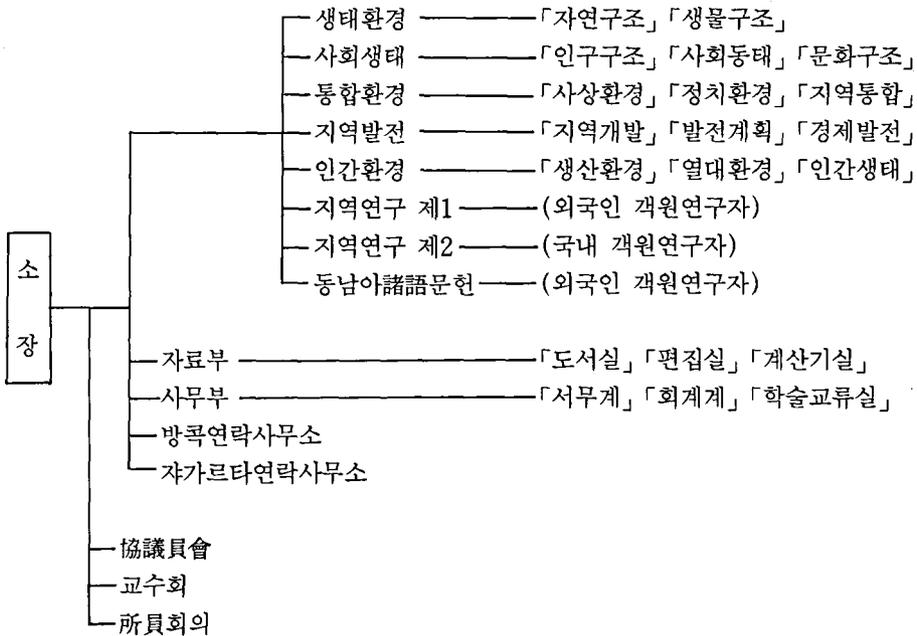
조사는 시설 견학, 현황 설명 청취, 문서자료 수집,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는 II에서 방문한 순서에 따라 현황을 기술하고 인상적이었던 특성을 지적한 다음 III에서 각 사례가 차지하는 위상을 검토하는 순서로 정리하였다.

## II. 조사 내용

### (1) 『京都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

(CSEAS: The Center for Southeast Asia Studies, Kyoto University)

『京都대학 동남아시아연구센터』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연구를 총괄 관리하는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연구소는 연구자들의 모임인 『동남아연구회』를 모체로 하여 1963년에 대학 내부의 자체 결정으로 만들어졌으며 공식적으로는 「국립학교 설치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다음 1965년에 발족했다. 이 연구소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에 덧붙



여 자연과학(농업) 부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는 생태와 환경 부문이 포함되어 있는 연구부의 조직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시설 현황을 보면 현재 독립된 연구동과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29인의 연구소 전임교수가 배치되어 있다. 연구소 교수의 강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학과가 요청하면 수업을 맡는다. 1993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입학정원은 6명이다. 대학원 교육에 착수한 이유는 해외개발원조(ODA)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함께 외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기 때문이다. 입학자격은 대졸자이며 전공은 불문에 붙이고 있다. 대학원생의 어학교육은 「大阪外語大學」 「京都産業大學」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언어는 연구소의 교수가 직접 교육하기도 한다. 6개월~1년의 계약제로 초빙한 유급 외국인 교수가 6명 있으며 수시로 외국인 객원교수를 받아 들인다. 또한 방콕과 차가르타에도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다.

도서관에 수집한 자료의 규모는 1990년 현재 외국어 도서 39,664권, 일본어 도서 12,467권, 잡지 736종, 마이크로피시 94,000상자, 마이크로필름 1,100릴, 지도 25,000매, 등이다. 서고에는 전동식 서가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지에서 수집한 문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제본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자랑이었다.

예산은 전액 문부성이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연구비와 관리비의 규모가 연간 1억 2천만円 정도이다. 다만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임시직의 급료는 여기에 포함된다. 그밖에 해외조사비와 과학연구비는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 1994년부터 4년간의 예정으로 전국 대학에 있는 70~80명의 연구자들에게 연간 1억円の 지역연구에 대한 특별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계간지와 모노그래프를 비롯한 출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京都대학에는 CSEAS와 비교하면 1/4 정도의 규모이고 2명의 교수를 가진 미국센터가 있다. 인문과학연구소는 중국이 전문 영역이며 고전과 역사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 (2) 『神戸대학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

국제협력 분야에 종사할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1992년도 신학기부터 석사과정 학생을 모집하기 시작한 새로운 형태의 대학원이다. UN, IBRD, ADB, IMF, JAICA(일본 국제협력사업단) 등의 공공기구, 기업, 각종 NGO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대학원으로는 두번째이다. 첫번째는 이보다 반년전에 설치된 名古屋대학의 국제개발연구과이다. 세번째는 廣島대학에 만들어질 예정으로 있다. 경제학이 중심이 된 「국제개발정책전공」,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협력정책전공」이 운영되어 왔다. 1994년부터는 경제학과 법학에 기반을 둔 「지역협력정책전공」이 개설될 예정으로 있었다. 이 전공의 교수진에는 UNIDO에서 다년간 근무한 한국인 경제학자 조영린박사가 있었다.

「국제협력연구과」가 만들어진 배경을 살펴보면 원래 외무성에서 「국제개발대학원」 구

상을 제시했었다. 의무성이 주체가 되어 실무자 양성에 중점을 둔 독일 방식과 학위과정에 중점을 둔 영미 방식을 모두 조사하여 커리큘럼을 만들었으나 문부성의 외면으로 통일된 정책이 결정되지 않아 2년간 혼선만 거듭했다. 결국 문부성은 독자적으로 국립대학에 학과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의무성은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FASIT (Foundation for Advanced Studies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고등교육기구)를 창설하였다. 단기연수를 위한 자체 시설도 갖추고 있다. 통산성은 별도로 「아시아경제연구소 개발스쿨」(IDEAS)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2년제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만들어졌다.

「국제협력연구과」를 설치하기 위한 대학조직의 개편은 “scrap & build”의 원칙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경제학부의 「국제경제학 강좌」를 하나 없애고 그 대신에 「국제협력연구과」를 조직하여 건물과 사무직원은 그대로이지만 교수의 정원을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하고 학생 정원도 늘어났다. 자체 교원 이외에도 객원교수와 시간강사에게 수업을 맡기고 있으며 과의 자체 기준으로 교액의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학내 다른 과의 교수가 강의를 할 경우에도 강사료를 지급한다. 大阪대학이 1994년 4월부터 개설할 예정인 「국제공공정책연구과」는 경제학부, 법학부, 교양학부의 조직을 일부 떼어내 조직되었다. 廣島대학의 「국제협력연구과」는 교양학부 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며 교원수의 변화는 없다. 名古屋대학에서는 교육학부, 교양학부의 언어부문, 경제학부, 법학부의 일부를 재조직하여 「국제협력연구과」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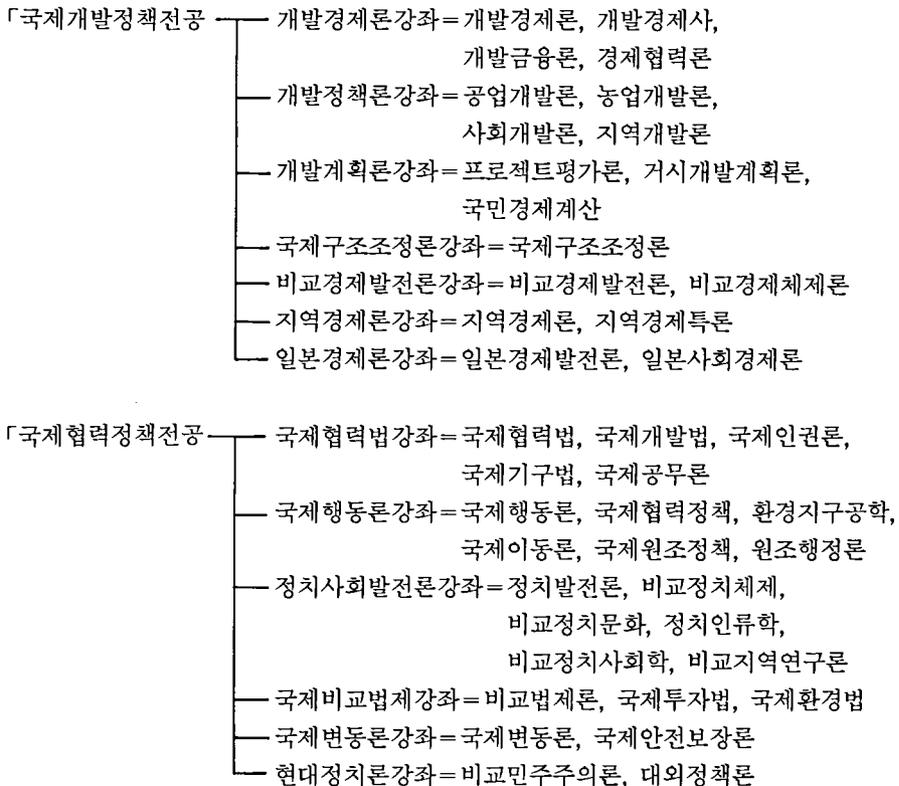
현재는 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원이지만 앞으로는 연구 태세를 정비할 구상이다. 예산은 전액 문부성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비실험강좌」에 비해 3배의 예산을 배정받는 「실험강좌」의 적용을 받아 예산 사정은 넉넉하다. 의무성 FASIT의 예산도 사용 가능하다. 매년 20여명 규모의 입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현재의 1기생이 석사과정을 마치는 시점에 맞추어 1995년 4월부터 박사과정을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독립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는 전임교수 60명, 대학원생 220~230명 규모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입학 지원자의 경쟁률은 높으며 학생의 의욕도 높은편이라고 한다. 「국제협력정책전공」 부문에서는 학생의 50%가 고교교사, 약제사, 시직원, YMCA 직원 등과 같이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며, 여학생이 반이다. 사직하고 온 사람과 현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각각 절반이다. 야간 강의를 개설해 야간 수업만 참가해도 2년만에 졸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도 받고 있다. 문부성 방침에 의해 정원의 20% 수준까지 유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며, 이들은 별도 정원으로 취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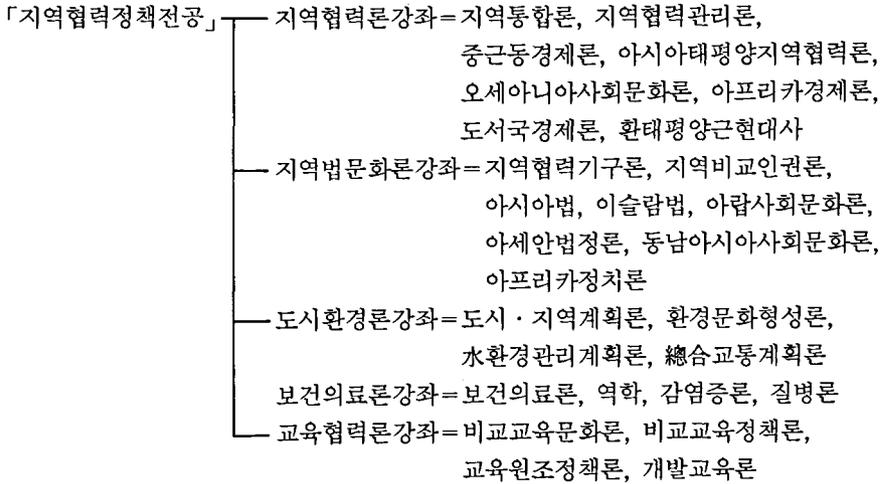
이 대학원에 대한 사회적인 호응도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JAICA에 직원의 교육 파견을 요청했으나 JAICA는 사기 진작을 위해 외국 연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새로 만들어진 대학원의 교육내용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체는 직원 파견에 협조적이다. 기업층의 반응을 보면 외국의 법규에 관심이 많으므로 대학원의 「법학연구과」에 직원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ODA 사업에 참여하는 일본의 대규모 컨설턴트회사들은 이공계 출신을 중시하며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전문가가 필요할 때에도 구미 연

구자들에게 의뢰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영어를 구사하며 경제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학원 출신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은 낮다. 중소 컨설턴트회사들이 직원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번에는 지원자들의 학력이 낮아 입학을 허가하기 곤란하다.

가장 큰 애로는 예상되는 졸업생의 취직 문제이다. 졸업후 국제학 修士 학위가 수여되며 전공 내용에 따라 경제학, 정치학 修士를 받을 수 있다. 1기생의 진로가 앞으로 「국제협력연구과」에 대한 사회적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오히려 미국 유학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졸업생의 진로에 대해 대학측에서는 UN, IBRD와 같은 국제기구를 바라며 JAICA에서 연간 몇명씩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과반수가 민간기업에 가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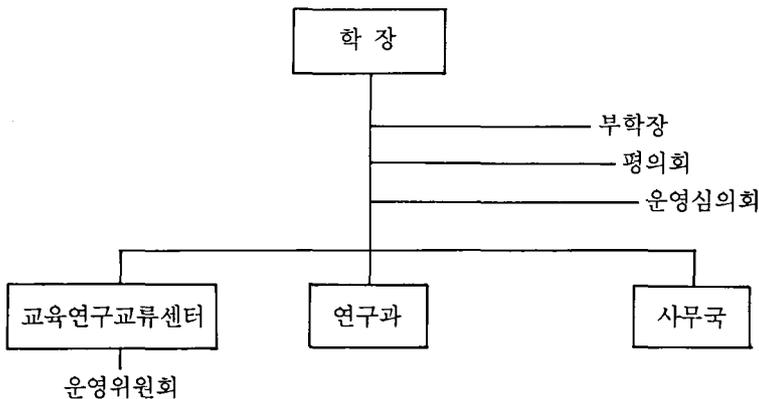




(3) 『국립민족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民博으로 불리우며 1970년에 열린 大阪엑스포 회장 부지에 자리잡고 있다. 1974년에 창설되어 1977년부터 개관하였다. 전시를 위한 박물관에 그치지 않고 연구소와 「국립대학 공동 이용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 1989년에는 대학원을 설치하였다. 즉 1988년 10월에 만들어진 「總合研究大學院大學」의 일부로서 교육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대학에는 3년간의 박사과정만이 설치되어 있다. 조사 시점인 1994년 2월 현재 民博에서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사람은 1명이었다.

입학정원 66명인 「總合研究大學院大學」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대학공동이용기관 네트워크에 참가하고 있는 11개 연구소가 전문 분야의 대학원 교육 기능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다. 대학원의 전공별 연구과는 특성에 따라 각 연구소가 분담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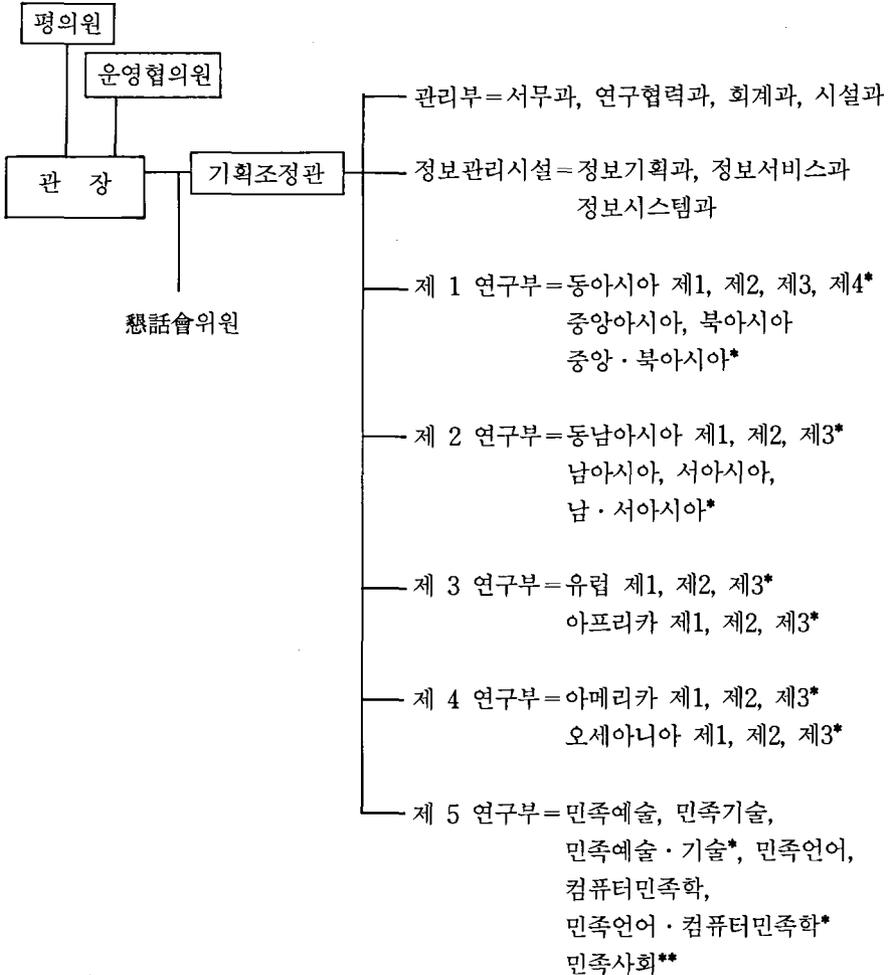


있으며 본부 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과 교육연구교류센터는 東京공업대학 長津町캠퍼스에 자리잡고 있다. 대학 외부에 있는 대규모 연구소가 박사 양성을 맡는 형식을 갖춘 總合研究大學院大學은 역사가 오랜 기존 대학 조직의 비능률적 의사결정과정을 우회하여 필요한 첨단분야의 고급인력을 신속히 양성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학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연구조직과 예산 획득의 측면에서 경쟁하게 되므로 아카데미즘의 훼손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조직과 역할 분담 체계는 다음과 같다. 박물관 관리부의 연구협력과의 기능에는 대학원 문화과학연구과의 교무행정이 포함되어 있다.

民博에 소장된 자료의 규모를 보면 표본, 영상음향 자료, HRAF(Human Relations Area Files) 이외에도 1993년 4월 1일 현재 375,166권의 도서와 잡지 10,901종의 잡지가 구비되어 있었다. 1993년도의 예산은 36억 8,200만円이었다. 5개 연구부에는 객원연구 부문을 제외한 21개 연구부문마다 교수, 조교수, 조수가 배치되어 있어 총 21명의 교원 정원을 가지고 있다. 이밖에도 박물관에서 축적한 노우하우를 활용하고 전국적인 지역연구의 조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연구센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1995년에는 교원 3인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연구원은 1인당 연간 50만円の 도서비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평의원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외부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은 자유 의사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거대

조직을 관리해야 하므로 연구의 생산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심지어 연구동 출입구에 진 열장을 만들어 놓고 연구원 개인의 업적을 전시하는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박물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객원연구부문, \*\* 외국인객원연구부문)



(4) 『아시아경제연구소』 (IDE ;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IDE는 「아시아경제연구소법」에 의해 1960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소이며 발전도상국연구가 전문 영역이다. 1993년의 연간 예산 49억 1,109만円の 90% 정도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자본금 6억 5,305만円 가운데 정부의 출자금은 5억 7,700만円이었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는 도서 30만권, 통계서 9만7천권, 지도 3만6천매, 마이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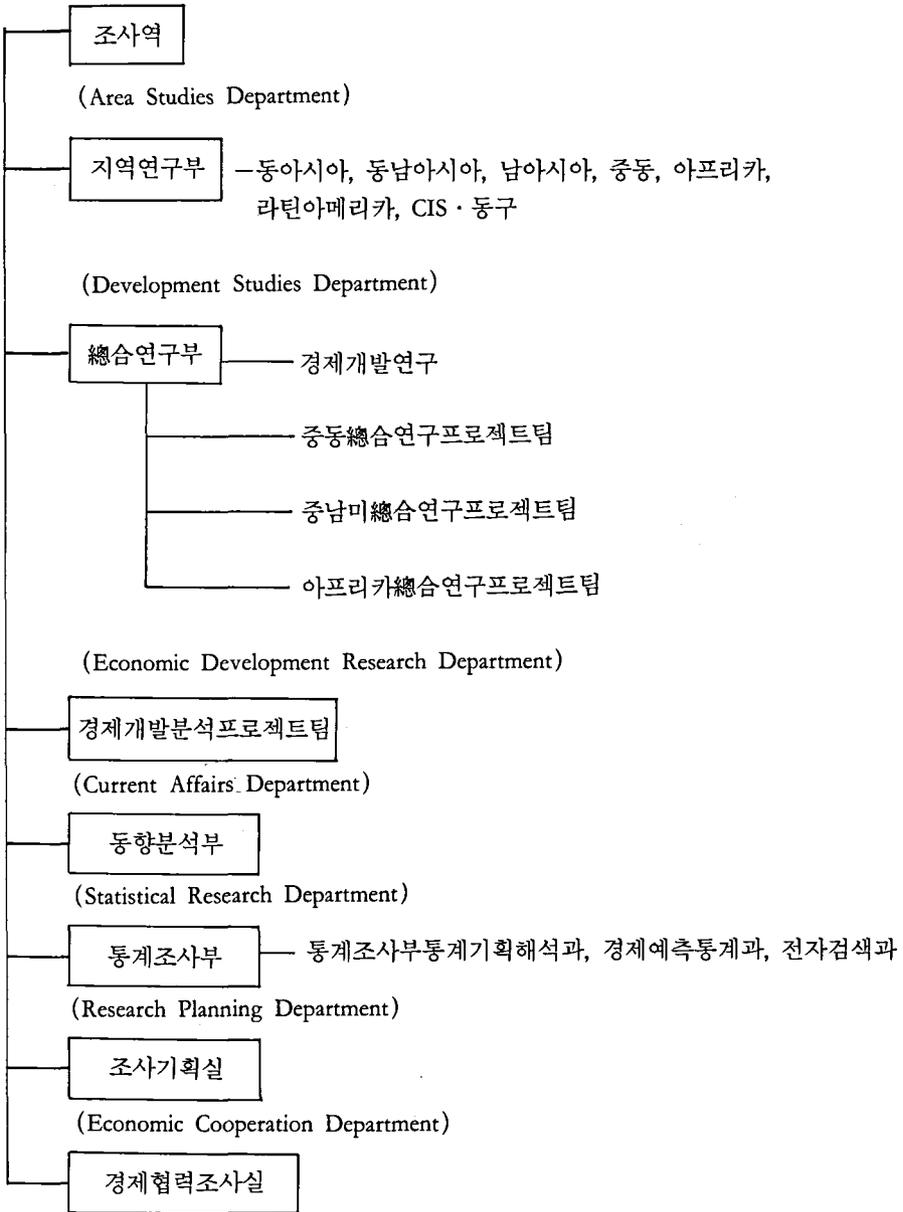
필름 6만8천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1993년 4월 1일 현재 연구요원 151명(해외 30명)을 포함해 256명의 직원이 있다. 연구요원 가운데 박사학위 소지자는 3명이며 대졸자를 채용해 자체 양성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있다. 현지 언어와 지역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5~6년 본국에서 근무하면 2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지역연구자를 훈련시키고 있다. 따라서 재직중 2~3회의 해외근무를 경험하게 된다. 일본 사회의 국제화에 따라 대학에서 지역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IDE에서도 두뇌 유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IDE 출신 교수는 조사 당시까지 120~130명 정도에 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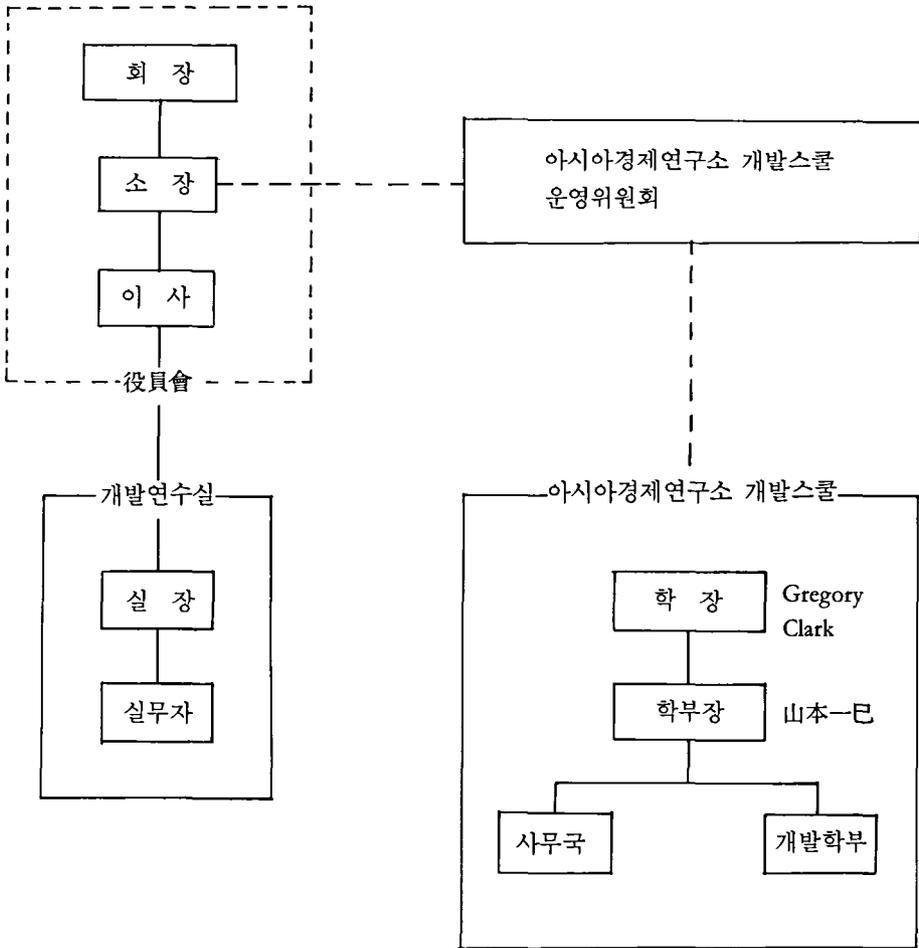
이 연구소는 지역연구 분야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위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학계와도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다. 자료수집의 기반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의 한 단면을 보면 창설 이래 1993년 3월말까지 해외에서 초빙한 객원연구원의 총수가 52개국의 연 333명이며, 외국에 파견한 연구원의 총수는 61개국의 464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에는 11명이 파견되었고 한국에서는 51명이 초빙되어 외국인 객원연구원 가운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원이 파견된 지역을 보면 미국 74명, 영국 32명, 태국 41명, 인도 35명, 홍콩 24명, 싱가포르 22명, 이집트 22명, 인도네시아 20명, 필리핀 17명, 오스트레일리아 13명, 등이며 발전도상국만이 아니라 구미의 선진공업국 지역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IDE가 초빙한 연구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한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30명이며 그밖에 인도 29명, 태국 28명, 필리핀 17명, 미국 16명, 브라질 13명, 인도네시아 14명, 스리랑카 13명, 등이며 기타 국가는 모두 10명 미만이었다. 연구자의 교류 상황 자체가 일본의 지역연구에서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DE의 조직표를 보면 지역연구가 정책연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연구 부문만을 살펴 보아도 일본이 제공하는 경제협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어 있다. 명칭과는 달리 사실상 구미의 선진공업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연구 대상으로 포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에 개교한 IDEAS(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Advanced School; 아시아 경제연구소 개발스쿨)의 현황은 주목할 만하다. IDE의 개발연수실에 부속되어 있는 이 기구의 주요 사업 내용은 발전도상국의 경제개발 전문가에 대한 훈련인 「해외연수생과정」과 일본인 경제협력 전문가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내연수생과정」이다. 전자는 주로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고, 네팔, 인도네시아, 등의 아시아 각국 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6개월간의 연수과정이다. 후자는 2년간의 대학원 석사과정이다. 운영 경비는 국고보조와 통산성이 관할하는 일본자전거진흥회(경륜협회) 및 무역연수센터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IDEAS의 국내연수생 과정은 1년간의 국내 교육과 1년간의 해외 유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부성에서 인정하는 공식 학위를 수여할 수 없는 조직이므로 석사 학위는 유학한 현지의 대학에서 받게 되어 있다. 국내 교육에서는 IDE의 연구인력과 외부 초빙강사가 교육을 맡고 있으며 아시아의 발전도상국 지역에 대한 견학도 포함되어 있다. 자





체 해외 유학 경비는 전액 IDE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졸업생에게 요구하는 반대급부로서의 의무는 없으며 각종 국제관계 기구에서 개발전문가로서 활동할 것을 기대할 뿐이다. IDE의 공신력이 배경에 있으므로 졸업생이 국제기구에 취직하기에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IDE도 1명을 자체 고용하고 있다. 정부 공무원도 현직에 있으면서 대학원 과정을 마칠 수 있으며 1993년에는 「회계검사원」에서 1명을 파견했다. 기업에서도 현직 사원을 보내는 곳이 있다.

교육내용을 보면 국내에서는 주로 경제학 중심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학가서는 사회학이나 정치학과 같은 인접 분야의 사회과학을 전공할 수도 있다. 1993년의 경우 주요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 A. 경제이론 등 (5과목)

거시경제학(24회) = 국민소득론, 금융·화폐론, 고용, 물가, 경기순환, 경제성장과 경제발전, 인플레이션

미시경제학(24회) = 수요공급론, 소비자행동과 수요, 기업행동과 생산비용, 완전경쟁시장과 불완전경쟁시장

경제수학 (24회) = 선형수학기초, 미분·적분

경제통계학(24회) = 기술통계, 확률분포, 검정·추정, 회귀분석

계량경제학( 6회)

#### B. 개발론 (4과목)

경제협력론(28회) = 일본 및 선진국의 원조행정·원조정책·원조의 이념, 프로젝트관리론, 프로젝트 시행을 위한 조달 수법

개발금융 ( 8회) = 개발금융의 기초이념, 제도금융, 사례연구

일본경제론(16회) = 전후 경제부흥, 일본의 경제정책

도상국경제론(8회)

#### C. 지역연구 (8과목)

지역연구론(8회)

아시아론(4회)

다음 6지역에 대한 공통 주제와 국별 사회·정치·경제 사정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각 8회)

#### D. 세미나 (1과목)

각자의 관심 분야 주제에 대한 심층 연구와 학위논문 지도 포함

#### E. 어학 (영어)

말하기, 듣기, 쓰기의 종합적 능력 향상

### F. 집중강의

원조정책의 실천 및 개발문제에 관여하는 전문가를 해외에서 초빙하여 국제기관의 원조정책과 실천, 주제별 개발론(환경문제·공업화·농업개발)등의 강의를 집중적으로 실시함. 모두 60회가 계획된 1993년의 강의 제목은 「도상국의 소규모·영세기업 개발」, 「개발을 둘러싼 정치」, 「개발경제학의 신조류」, 「도상국의 식량·농업 정책」, 「개발과 사회정치문제」, 「교육과 개발」, 등이다.

### G. 아시아 해외연수

아시아의 발전도상국에 가서 경제협력의 현장 등을 시찰하고 인적자원 개발의 현상·문제점·앞으로의 바람직한 협력방식 등을 모색한다. 1993년의 주제는 「방글라데시·중국에서 진행되는 인적 자원 개발의 현상과 과제」였다.

「해외연수생성과정」에는 강의와 함께 일본 국내의 연수여행과 공장견학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의 발전 경험에 대한 교육이 주요 목적인 이 과정의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 A. 경제협력 (2과목)

1. 프로젝트관리 (12회) = 프로젝트관리에 관한 조사, 분석, 기획, 타당성 조사, 위험과 불확정성
2. 일본의 원조정책 (12회) = 일본의 원조행정, 원조정책, 일본의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성

#### B. 일본의 발전경험 등 (6과목)

1. 일본적 경영 (12회) = 일본적 경영의 특징, 역사적 배경, 장래의 방향성,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전략, 해외 여러나라에 대한 적용 가능성
2. 전후 일본의 시장과 정치 (12회) = 전후 일본의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대해 국가의 산업정책과 소득정책을 중심으로 검증,
3. 일본 농업의 전개와 도상국에 대한 적용 (12회) = 일본 농업의 특징, 농업정책사, 농지개량, 농업협동조합, 농업조사·보급·교육, 경영문제, 동남아시아의 농업개발
4. 일본의 금융정책 (5회) = 일본 금융제도의 특징, 금융정책, 금융사, 금융기관, 금융시장, 일본의 재정구조
5. 일본의 산업정책 (12회) = 산업정책, 무역정책 등
6. 개별지도 (12회) = 일본경제총론, 일본 산업의 개요, 일본의 과학기술과 기술이전, 수료논문지도

## C. NIEs論 (1과목) (11회)

NIEs의 경제발전 =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각국의 내적 요인을 중심으로 NIEs 여러 나라의 정책, 구조조정의 경험, 외국자본과 일본 투자의 역할, 90년대의 개발전략등

## D. 어학 (일본어) (62회)

일본 생활에 필요한 표현의 습득

## E. 집중강의 (30회)

개발경제론 (10회), 농업개발론 (10회), 원조정책 (10회)

## F. 국내연수여행 (3회), 공장견학 등 (5회),

일본의 발전 경험을 배우러 온 해외연수생은 1991년 8명, 1992년 11명이었다. 이들의 국적은 필리핀, 타이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이었다. 일본에서 개발전문가로 양성하기 위해 해외 유학을 보낸 연수생의 규모는 1991년에 13명, 1992년에 12명이었다.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IDEAS는 발전도상국에 대한 원조대국으로 떠오른 일본의 원조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내외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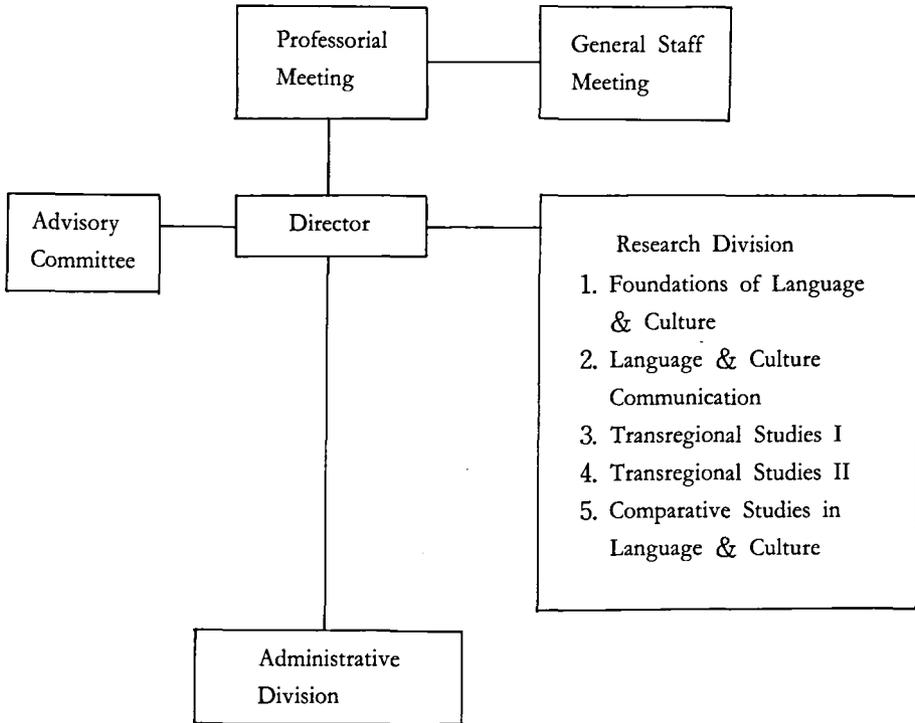
## (5) 『東京외국어대학, 아시아·아프리카 언어문화연구소』

(ILCAA;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nguages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Tokyo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LCAA는 1964년 4월 1일 창설되었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처음 만들어진 「대학 공동이용기관」이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언어, 언어학, 문화인류학, 사회학, 민족학, 사회사에 대한 학제적 연구를 장려하고 중요한 연구 업적을 출간하는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지역연구 조직에 대한 일련의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ILCAA의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학과 연구소의 관계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예산은 문부성에서 직접 배정받고 있다. 전국 여러 대학의 현직 및 명예교수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Advisory Committee)도 대학과는 별도의 기구이다. 교원 인사는 연구소 교수 3인과 운영위원 3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후보자를 심사 하여 연구소의 교수회의와 운영위원회가 인선한 다음 대학 본부에 결과를 통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인사권이 행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ILCAA가 東京외국어대학 구내에 설치되어 있지만 인사, 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소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대학으로서도 대규모 거점 연구소를 구내에 유치하는 것은 물론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에는 1992년 4월 현재 교수 17명, 조교수 15

명, 조수(助手 Tenured Research Fellow) 9 명이 있다. 이들이 학부 강의를 할 경우에는 대학에서 외부 강사로 대우하지만 대학원에 대해서는 강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소의 시설과 교원이 있으므로 박사과정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측면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규모 연구소가 없는 大阪外國語大學은 박사과정이 없다. 즉 연구소의 교원이 대학원 교수를 겸임하여 박사과정 학생을 지도하는 형식이다. 연구소는 4명의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생에 대한 선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소와 대학의 조직이 일부 공유되어 있는 부분이 대학원의 지역연구 부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조사 당시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는 21개였으며 연구기간은 최장 3년씩 책정하고 있었다. 과제마다 연구소에서 조직자 1명과 부조직자 2명이 참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외부에서 참가하는 협동연구자는 420명에 달하고 있었다. 일년에 2~3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연구자들이 모여 회의를 가질 때는 교통비 정도 지원하고 있었다. 연구소 자체에서 출판한 연구 성과가 600권 이상이였다. ILCAA의 시설 가운데 특이한 곳은 컴퓨터를 활용한 언어 연구 시스템이었다. 도서관의 장서는 1992년 3월 현재 71,709권, 잡지 1,600종, 신문 22종, 마이크로필름 6,261릴, 등이었다. 또한 첨단 전자기기를 이

용한 음성 도서실도 갖추고 있었다.

현지 감각을 가진 지역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조수가 되면 2년간 외국에 나가 있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일체 귀국을 허용하지 않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다. 대학원생에게 특수언어를 단기간에 교육시키기 위하여 방학때는 10명이하의 학생을 모집하여 6주간 집중강의를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6) 『東京대학 동양문화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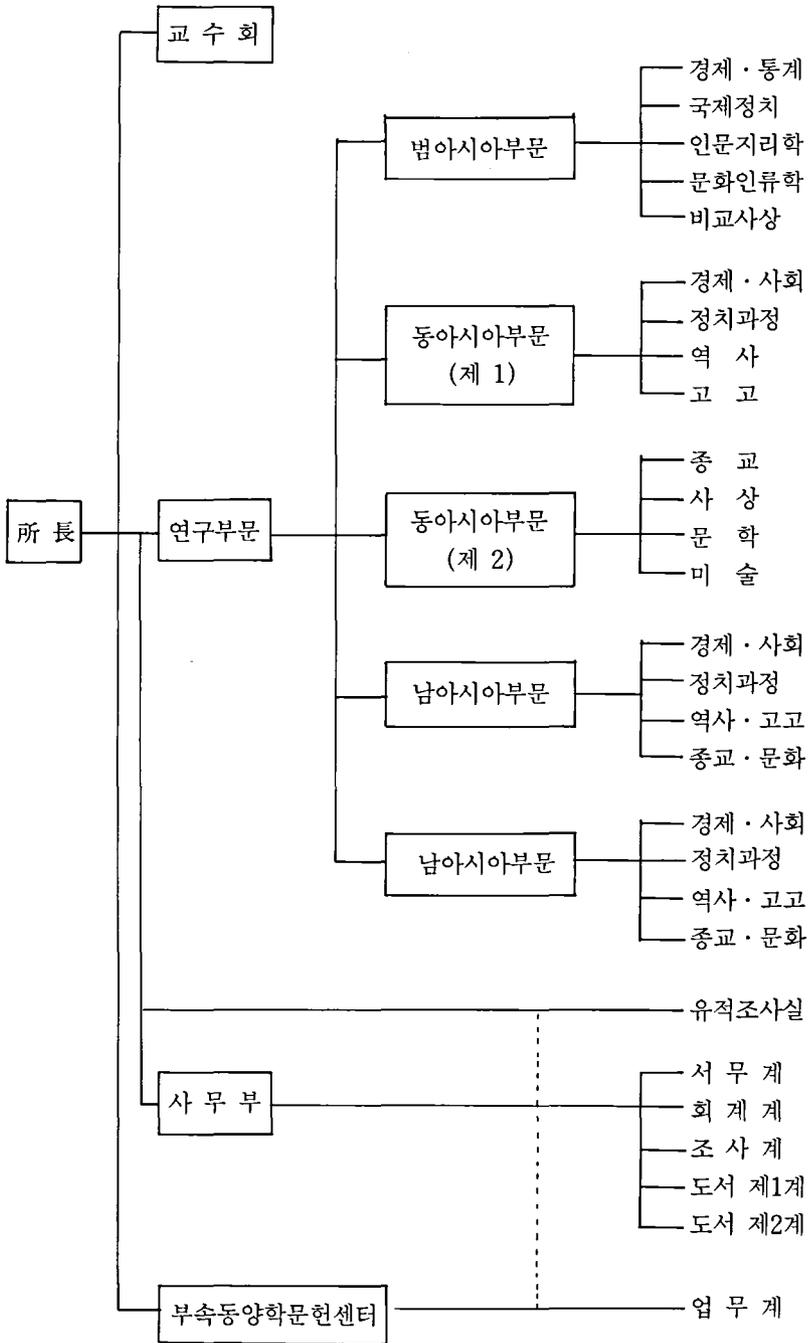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일본 학계에서 東文研으로 통칭되는 이 연구소는 1941년 11월 26일 창설되었으며 외무성 관할의 동방문화학원을 개편하여 동양문화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실시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는 당시의 주요 전장이었던 중국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었다. 이 연구소는 인접한 東洋文庫 및 京都대학 인문과학연구소와 함께 중국 고전문헌을 수집하고 연구하는 거점이 되어 있다. 현재도 중국연구가 중요한 대상이기는 하지만 조직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집트와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고 있다. 지역을 우선 구분하고 그안에서 학문 영역별로 세분화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조사 시점 현재 연구소 전임 교원의 규모는 교수와 조교수 25명, 조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東文研은 대학원의 5개 연구과의 교육을 지원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학부 교육에 대한 참가는 개인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교수요원 1명에게 대학원생 정원 2명이 배정되는 체제이므로 대학원의 각 연구과는 연구소 소속 교수와 제휴하여 강의 지원만이 아니라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구소 교원은 과에 소속된 교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학원에서 강의하며 학사운영에도 같이 참여한다. 실제로 동양사학과의 경우에는 문학부 교수보다 東文研 교수가 더 많다. 연구소장은 대학 전체의 운영을 논의하는 評議會에 참가한다.

東文研에서 들은 설명에 의하면 일본의 정책 기조가 자율성이 강한 대학 연구소보다는 정부출연 연구소를 육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따라서 정책과제를 다루는 곳에 프로젝트 단위로 풍부한 연구비가 지원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국립대는 강좌당 연구비가 책정되며 東文研의 경우에는 예산의 70%가 실험장비에 지원되는 연구비, 즉 校費로 충당되고 있다. 나머지는 科研費(과학연구비보조금)와 대학본부가 관리하는 민간재단의 연구조성금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되는 科研費의 비중이 높아가는 추세이다. 조사 시점 당시의 校費에서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1억 6천만만 규모였으며 여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東京大學의 경우 지금까지 학부의 과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대학원은 부속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대학원을 강화하고 학부를 부속기관화하는 방향으로 대학 조직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법학부에서 법학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東文研은 자체적으로 가칭 「아시아학대학원」과 같은 독립적 대학원의 설치를 구상하고 있다. 東京대학 내부에서도 이미 先端과학기술연구센터는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다. 대학



원 강화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사회인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분도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인이 특별전형을 거쳐 대학원에 들어와 1년 동안에 修士(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7) 『東京대학 사회과학연구소』

(Institute of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社研으로 불리우는 이 연구소는 패전 직후인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법률, 정치, 경제 제도와 사정을 비교 연구하여 일본을 민주주의적 평화국가로 재건하는 과업에 기여한다는 설립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사회정책과 노동문제 연구에서는 일본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社研은 국제적 시야를 가진 학제적 연구를 통해 일본사회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지향하고 있다.

같은 대학내의 東文研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社研의 연구 대상 지역은 일본 및 구미의 선진공업국과 사회주의권이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시아에 대한 연구도 착수하고 있다. 연구소 조직의 변천 과정을 보면 설립 당시에는 국가별로 구분되어 연구 부문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후 지역보다는 전문 영역을 기준으로 삼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1985년 4월이후 현재까지 4부문, 22 연구분야( 객원 1 분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1990년 현재 연구소의 정원은 교수 21명(객원 1명), 조교수 13명(객원 1명), 조수 15명이었다. 이밖에도 연구를 위촉한 東京大學 내부의 교원과 다른 대학 교원인 비상근강사도 연구소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비교현대법 = 통치관계법, 생활관계법, 산업관계법, 대륙법계, 앵그로색슨법계, 사회주의법, 비교법(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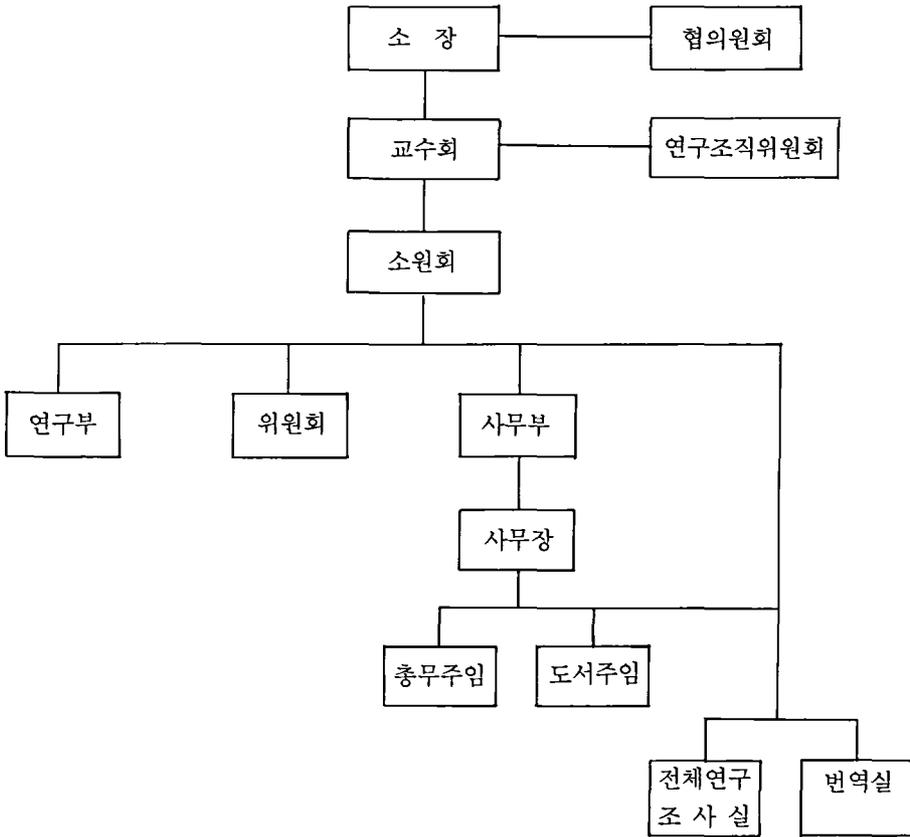
비교현대정치 = 정치과정, 정치변동, 정치문화, 구미정치, 사회주의정치

비교현대경제 = 재정금융, 산업경제, 농업·식량문제, 유럽경제, 미국경제, 사회주의경제

비교현대사회 = 노사관계, 사회운동, 사회보장, 지역사회

社研에서는 서로 영역이 다른 연구자들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었다. 연구를 조직하는 방식은 「개인연구」 「그룹연구」 「전체연구」로 구분되어 있다. 그룹연구에는 외부 연구자도 참가할 수 있으며 전체연구는 소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연구이다. 개인의 연구 성과는 동시에 연구소의 업적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학과의 관계를 보면 東文研이나 마찬가지로 소장이 학부장(단과대학장)과 동등한 자격으로 대학 운영에 간여하며 소내 교수회의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이다.

연구소에 속한 교원이 학부 교육에 종사할 의무가 없는 것은 이번 조사에서 방문한 다른 국립대학 연구소나 마찬가지로였지만 대부분이 대학원의 「법학·정치학연구과」 「경



제학연구과, 「總合문화연구과」에 참가하고 있다. 「總合문화연구과」에 참가하는 교원은 러시아사가 전공이고 한국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和田春樹 교수 1명이므로 실제로는 연구인력의 교육기능이 「법학 정치학 연구과」와 「경제학연구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체제를 만들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연간 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해 8억円 정도라는 설명이었다. 1989년의 자료를 보면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9% 수준이었다. 社研은 예산면에서 우대받는 곳이 아니지만 이 비율이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면 2억円 정도의 연구소 예산을 쓰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도서관의 자료 소장 규모는 1989년 현재 도서 22만권, 잡지 1,625종, 마이크로필름 21,727 릴, 마이크로피시 151,595매, 등이었다.

### Ⅲ. 총괄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살펴 본 일본의 지역연구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가 한국의 학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처음에 제시한 문제 관심에 따라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집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우선 일본에서 지역연구에 투입되는 자원과 인력의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여러 조직간의 역할 분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한일간에는 경제력의 격차가 있고 지역연구에 대한 관심의 강도가 다르므로 연구비의 액수만을 단순 비교하여 연구 여건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부가 1년간 전국 대학에 지원하는 지역연구비가 일본의 대학 연구소 하나가 쓰는 비용 정도의 수준이라는 사실은 쉽게 간과할 수 없다.

② 東京대학, 東京외국어대학, 京都대학에서 본 사례와 같이 일본의 대학 연구소가 대상 지역별로 전문화되어 집중 육성되고 있는 거점교 방식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연구 거점교에 설치된 대형 연구소가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면서 해당 분야에서 전국적인 연구 중심으로 기능하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인사, 재정, 운영, 등의 측면에서 연구소 교수회의가 실질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소의 교수가 과의 교수와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에 참여하므로 대학으로서도 대형 연구소가 있으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설 기준도 충족시키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③ 神戸대학 국제협력연구과와 같이 국제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무자를 양성하기 위한 새로운 대학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사실상 해외 개발원조의 최대 공여국인 일본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의 확보라는 의미가 있다.

④ 대학 외부에 설치된 연구기관도 연구자와 국제협력 업무의 실무자를 양성하는 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고 있다. IDEAS는 연구소에 축적된 지식, 정보, 인력을 활용하여 국제 감각을 가진 실무자를 교육하는 사례였다. 「總合연구 대학원대학」의 일부로서 民博이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사례에서는 인력과 자원이 풍부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조직한 새로운 형태의 연구자 양성 방식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존 대학에서는 비판적 아카데미즘의 퇴조라는 시각에서 비판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⑤ 이번 조사에서 방문한 연구 교육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기능은 서로 달랐지만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지역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연구자나 실무자의 양성 과정에서 이론 교육과 함께 철저한 현지화 훈련이 중시되고 있었다.

한일 양국의 사회적 요구가 서로 다르므로 일본의 지역연구 방식을 한국에 그대로 적

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기록 자체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이 달라지면 서 대학과 연구기관에 생기는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이 조사 과정에서 추구된 문제 관심은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는 시장통합과 사회의 국제화가 지식의 생산과 보급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하는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대학이 보이고 있는 대응 자세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지역연구에서 하나의 새로운 분야가 열리는 단서가 만들어 질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 〈참고자료〉

#### 京都大學

1990, 『東南アジア研究センター所報』

1992, CSEAS: The Eighth Report 1991-1992

1993, Guide to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nguages and Cultures of Asia and Africa

#### 神戸大學

1992, 『神戸大學概覽』平成4年度

1993, 『Outline: 神戸大學大學院 國際協力研究科』, 『神戸大學大學院 國際協力研究科 地域協力政策專攻』

#### 國立民族學博物館

1993, 『國立民族學博物館要覽』, 『國立民族學博物館』, 『總合研究大學院大學 地域文化學專攻 比較文化學專攻 概要』, 『總合研究大學院大學 要覽』

#### アジア經濟研究所

1993, 『アジア經濟研究所のご案内 1993/4』

1993,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XXXI, no. 4

1993, IDEAS; IDE Advanced School

1993, 『アジア經濟研究所開發スクール』

1993,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Annual Report 1993.

1994, 『アジ研ニュース』1994 1・2 no.151.

#### 東京大學

1990, 『東京大學社會科學研究所 要覽』no.15

1992, 『東京大學の概要 平成4年度』

1992, Institute of Oriental Culture, University of Tokyo 1992

1992, 『東京大學 東洋文化研究所 要覽 1992年度』

1993, A Guide to Institute of Social Science(ISS), The University of Tokyo 1992-93

이종구,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연구원

주소 : (151-742)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Tel : 880-8508(O), 618-4353(H)